

## 'JP와 미술' : 박광진 화백 인터뷰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중에서도 특히 미술계에 여러 정책과 진흥사업을 지원해 온 JP에 대해 미술계 인사들은 한결같이 고마움을 갖고 있다. JP 자신도 예술 분야에 많은 식견과 재능을 갖고 있으며 특히 그림 솜씨는 개인전을 가질 만큼 뛰어나 그동안 60여 작품을 그려 연말 자선전시회 출품과 외국 대학과 인사들에게 선물로 기증하여 왔다. JP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부터 개인 지도를 받아오고, 전국을 순회하며 그림 그리기와 여러 미술진흥사업 구상을 함께 해온 박광진 화백을 본 재단 신문영 사무총장이 만나 'JP와 미술'에 대해 대담을 가졌다.

〈일시: 2017년 12월19일 장소: 강남 박 화백 화실〉

문: 김종필 총재님과 언제 처음 만나셨나요?

답: 1965년 아마추어 동호인을 위한 취미단체로 일요화가회를 창립했는데 마침 고교 선배인 한동진 씨가 공화당 사무국장으로 있어 소개를 받아 당의장 사무실로 입회원서를 받으러 간 것이 첫 대면이었지요.

### 정치인도 군인도 아닌 호남형 부드러운 첫 인상

문: 첫 인상이 어떠셨나요?

답: 당시 JP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어마어마한 인물로 세간에 알려져 있어 큰 부담을 갖고 만났는데 너무나도 호남형의 부드러운 인상이었고 따라서 생각보다 쉽게 입회원서를 받았어요. 첫 인상은 정치인도 군인도 아니었어요.

문: 입회 후 일요화가회 활동은 어떠셨나요?

답: JP가 일요화가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67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 일요화가회의 초대회장이 이마동(1906-1981, 홍익대 미대 학장 역임) 선생이었고 나를 포함하여 김인승(1911-2001, 동생이 김경승 조각가), 오승우(1930-, 오지호 화백의 아들) 등 몇 사람이 그림 선생이 되었지요.

문: 그림에 소질이 있어 보였나요.

답: 사범대 출신이라 그런지 예능에 퓌 재질이 있었어요.

JP는 그림 그리는

기초는 안 배웠지

만 선천적인 재능

이 있었어요. 굉장

히 치밀했지. 정물

에 낀 때까지 꼼꼼

히 다 그렸으니까.

이게 그림 지도하

는 내게는 좀 불만

이었어요. “혁명까

지 한 큰 인물이니

좀 큰 대담한 표현을 하시지요”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JP화첩 1집(1971, 서문당)에 표지 그림을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문: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언제였나요?

답: 68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그림으로 소일 하셨지요.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며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 나도 동행

을 했어요. 부산, 제주도, 경주, 설악산, 강릉 등 전국을 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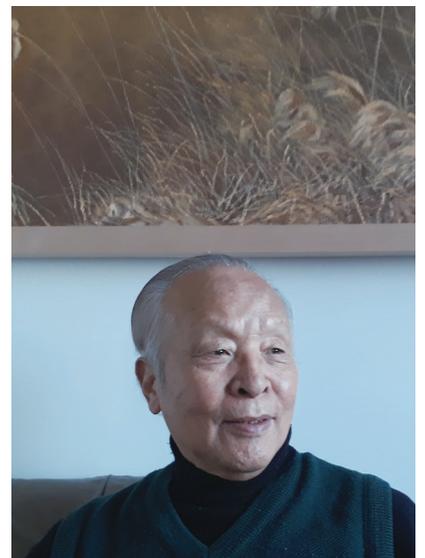
이 다녔지요. 4월에 개최된 일요화가회 정기총회에서 2대

회장으로 이창정 씨가 선임되었고 JP는 명예회장으로 추

대되었지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김종필 총재는 일요화가회 명예

회장이시지요.



68년 여름 동해안 강릉 해변에 까지 찾아온 동아일보 기자가 개인전을 열어 호남의 가뭄 피해 지역에 의연금을 기증하면 어떻겠냐는 제의가 있었고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기정사실로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그해 가을 신문회관 화랑에서 일요화가회 주최로 개인전이 열렸지요. 이원업, 이창정 등 몇 분이 찬조 출품하고 JP는 무려 16점을 출품하여 모두 팔리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때 500만원이라는 거금(당시 대학 등록금이 3만원)이 모여 이를 전남 나주군 동강면 진천리 부락에 전달하고 이 부락은 감사의 뜻으로 운정마을로 마을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 역사적 민족기록화 제작으로 미술계 발전에 기초

문: 그러면 68년에 그림을 시작하셨군요?

답: 아닙니다. 그림을 직접 그리신 것은 68년이지만 민주공화당 의장이던 67년 생소한 장르인 민족기록화를 그려 보자는 제안을 화단에 하셨지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1000호(5.3x2.5m) 크기의 초대형 캔버스에 한민족의 주요 역사 장면을 그려 넣자는 제의였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무려 55명의 중진, 원로작가들이 참여한 엄청난 스케일의 기획이었지요. 당시에는 그런 대형작품들을 제작할 형편도 아니었고 그럴만한 미술재료들을 구입하기도 불가능했지요. 그래서 JP는 일본에 사람을 보내 3t 트럭 분량의 미술 재료를 사서 배로 싣고 화단에 무료로 풀어 놨습니다. 당시 우리 화가들로서는 평생 처음보는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작가에게 나눠주고 그린 민족화를 작가들 또한 무상으로 기증해 다음해 7월 경북궁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회에는 단군 이후 민족의 얼을 부각시킨 역사적 장면을 담은 그림들이 걸렸지요. 그때 그 작품들이 모두 국가적 기록물들인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어 아쉽기만 합니다.

문: 민족기록화의 의미를 좀 더 말씀해 주시지요.

답: JP가 엄청난 양의 미술재료를 들여와 사용케 했던 것은 한국미술 발전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계기를 만들어



1979년 12월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15회 한국일요화가회 연말자서전 개막식에서 방문록에 격려의 글을 쓰고 있다.

주셨다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한국미술이 어려웠을 때 미술 발전의 기초를 마련해 주신분이라 하겠습니까. 그래 많은 미술인들이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 JP가 80년에 대권을 잡았다더라면 한국의 문화예술은 대전기를 완벽하게 이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아쉽지요.

문: 이후 그림을 계속 그리셨나요?

답: 못하셨습니다. 3선 개헌 정국과 대선 지원 유세 등으로 그림 그리실 여유가 없었지요. 그러다 국무총리로 취임하시니 나라 일로 그림 그리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지요. 그러나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례로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토록 하셨지요. 이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발족했고, 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됐지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10억대의 문화예술기금도 이때 마련되었습니다. JP는 나와 김영중(1926-2005, 홍익대 조소학) 작가를 자주 찾으셨지요. 우리들을 작가이면서 미술 정책에 특별한 관심과 마인드가 있다고 평해주셨어요.

문: 그러면 그림을 다시 시작하신 것은 언제 부터인가요?

답: 아무래도 국무총리의 공직에서 물러나신 1976년부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도 제주도, 설악산 등 여러 곳을 다니셨는데 많이 그리지는 않으셨지요. 당시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79년 박대통령 서거 후 주위에서 대통령 출마를 강권하는 주위의 성화를 피해 그림을 그린다든 핑계로 제주도로 도망아닌 도망을 갔어요. 그때 나

도 동행을 했지요. 서귀포에 있는 호텔에 여장을 풀 후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어요. 아무한테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고집을 부렸지. 나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강권하는데 대통령 한번 하시지'라고 생각했는데, 글썽 아마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있었다더라면 심경에 변화가 왔을지도 몰라. 그 때 문을 늘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JP가 호텔 방에서 모델을 데리고 논다'는 웃지 못할 소문도 있지요. 그런데 내가 JP와 많이 다녀왔지만 여자 관계 소문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 미술계 지원 기념, 목우회 전시회에 'JP 대상'

문: 그림을 직접 그리신 것 외에 미술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답: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일화가 많아요. 11대 총리시절인 70년대 매년 국전이 열리고 있었는데 작품이 안 팔렸어요. 따라서 화가들의 생활이 참 어려웠지요. 그래서 JP는 대통령 명의로 전 국영기업체에 공문을 보내 국전에 전시된 작품들을 의무적으로 구입할 것을 지시했어요. 이때 주로 많은 은행들이 작품을 구입했어요. 이때부터 큰 미술작품들이 일반에게 팔리는 계기가 마련됐고 봅니다. JP가 아니면 불가능했던 정책이지요.

한번은 나에게 부여 백마강 건너 암벽에 미국 러시모아에 있는 "큰 바위 얼굴상처럼 우리나라 위인 4인상(세종대왕, 이순신, 신사임당, 박정희)을 조각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프로젝트를 맡기기도 했어요. 다만 돌이 무르고 규모가 작아 위에 조각상을 얹는 방법 등으로 추진하다 성사는 안된 일도 있어요.

80년대 초 내가 프랑스에 바르비종 미술관에 들러 작품을 둘러보고 있는데 관계자가 한국에서 왔느냐고 묻더니 안에서 60년대의 방명록을 가져와 보여주며 이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서 살펴보니 JP의 사인이 있었어요. 사인의 사연을 물어보니 그 미술관에서 밀레의 작품을 사간 최초의 동양인이어서 자기네 미술관이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다

는 설명이었어요. JP는 다방면에서 진정으로 미술을 사랑하고 애호하는 분이라 하겠지요.

문: 박교수님 외에 다른 화가들과의 교분은 어떠하셨나요?

답: 김은호, 장우성, 윤중식, 오지호 등 많은 화가들이 진심으로 JP를 좋아하고 어울렸어요. 손응성, 이준우 씨 등은 전시회도 열어주고 특히 김응수 화백은 주례까지 서주셨지요.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하였는데 돌아간 박영옥 여사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식이라고 주례를 하지 말라고 반대도 하였지요. 이원엽, 이마동 등과는 자주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때마다 나는 술을 잘 못해 아쉬웠지요. 지금도 목우회 개최 전시회에서 대상을 'JP상'이란 이름으로 시상하는 것을 보면 미술인들과 인연은 아주 좋은 관계이지요.

문: 속된 말로 지도교수가 돼서 덕 좀 보셨습니까?

답: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불이익도 받았지. 내가 예술원 회원으로 추천됐을 때 JP와 가까운 것을 문제 삼아 10년 이상 늦어지기도 했지요.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께서 79년 미국의 카터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영빈관에 사계절 대형 벽화를 그리라고 하셔서 도움이 되었고 그런 인연으로 기업들에 알려졌지요.

96년인가 JP가 자민련 총재로 계실 때 내가 미협 회장으로 재도전하기 위해 미술인의 숙원인 미술회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워 JP의 도움을 청한 적이 있어요. 미협의 재정은 없고 그래서 증진 이상의 작가들 430점을 모아 이걸 밀천으로 건물을 마련해 달라고 떼를 썼지요. JP는 "작품만 모아와"라고 긍정적으로 말했지만 내가 그 선거에서 패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갈매**

#### 필자약력

# 박광진 화백은 1960년대에 목우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며 민족기록화 제작과 청와대 영빈관에 내부 설악산 4경 제작 등 많은 작품을 그려온 원로 화가이자 교육자이다.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서울교육대학 명예교수를 맡고 있다.